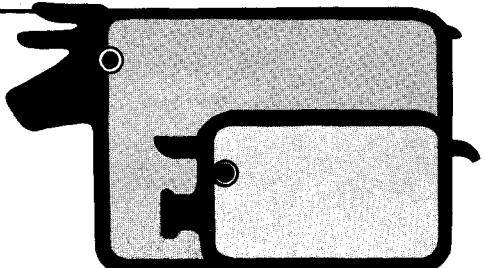


소식

축 산 업 계



전국양계인 단합대회 개최

- 본회 및 양계관련 5개단체 후원으로 -



▲전국양계인 단합대회가 열렸다.

전국양계인 단합대회 추진위원회(회장 정창각) 주최로 지난 2월 5일 여의도소재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양계인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닭고기·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의 수입을 결사반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에서 1천 5백여명의 양계인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양계인들은 만장 일치로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규모가 영세한 국내 양계산업이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닭고기·계란을 비롯한 양계산물의 수입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배합사료 및 원료사료와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부가세의 면세와 불합리한 양계산물의 유통구조의 시급한 개선도 아울러 건의했다. 양계인들은 이어 전국양계인일동 명의로 △양계산업 안정

기금제도(자조금)의 채택 △양계시설의 신증설동결 △유통구조개선에 앞장선다 등의 3가지 사항을 결의하고 이같은 결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후속조치는 대회장을 비롯한 대회후원단체장들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양계인들은 전남·광주지부 안명수지부장의 선창으로 △닭고기·계란수입을 결사반대한다. △수입개방 주장하는 미국 앞잡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농민앞에 사과하라. △퓨리나 대주주 심상준은 망언을 취소하고 축산인에 사과하라. △사료에 부가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철폐하라. △우리 30만 양계인들은 생존권을 사수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전국의 30만 양계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위협받고 있는 양계인들의 생존권을 수호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대회는 대회주진경과보고에 이어 대회사, 「수입개방압력과 양계인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성훈박사의 특별강연도 있었다.

전국양계인 단합대회 추진위원회가 양계인들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주최한 이날 대회는 본회를 비롯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전국계우회연합회·육계농가안정협의회·한성협동중앙회 등의 양계산업관련 5개단체가 후원했다.

한편 이날 전국양계인 단합대회결과 결의사항을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에 전의한바 있는데 이에대해 농림수산부에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GP사업의 발전과정 세미나 개최

제일양계기구제작소(대표 박호일)는 3월3일 16시 리베라호텔에서 일본 교와기계 도모수 시게오 부사장을 초청하여 일본에서의 GP사업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 대규모 채란양계업자 기존 GP센타 GP기계 제작소 등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개발된 일본 교와의 GP기계가 소개되었고 4월29일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관에서 개최되는 농수축산신보 주최의 전시회에도 3종류의 GP기계를 출품하겠다고 하였다.

육계농가안정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 2월24일, 유통구조개선에 주력키로 -



(최성복 회장)

전국육계농가안정협의회(회장 최성복)가 지난 2월 24일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수업사업소 회의실에서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금년도 사업목표로 정확한 시세파악과 지역정보교환, 유통구조개선, 수입개방저지 운동 및 닭고기 소비홍보 등에 주력할 것을 논의하고 오는 3월17일 '88정기총회에 상정시켜 최종 확정실시키로 결정했다.

마니육종 제11회 종계경영자 세미나

-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2월 6,7일 양일간 -

마니육종(대표 이계육)은 지난 2월 6, 7일 1박 2일간에 걸쳐 제11회 종계경영자 세미나를 서울강남소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전국 종계업자 및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천호행사는 대형화된 축산업계의 안정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양축가들에게 기업운영의 소개와 함께 사양관리, 질병문제, 업계의 동향 및 전망 등을 직접 논의하는 교육적 효과를

병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계조회장은 인사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천호가 닭육종사업을 착수한지 12년의 역사로 육용종계업자세미나와 마니커의 밤행사를 11번이나 실시, 국내 양계산업발전에 미친 하나님의 기여해왔다」고 밝히고 「천호의 이 같은 종계개량사업은 어렵고 힘든 사업이면서도 이익이 적지만 양계산업의 시초가 종자부터라는 차원에서 양계속국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닭육종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종계장건설 및 종계관리차원에서 모든 기술을 집약시켜 부화장과 부화기술에서 혁신을, 질병예방의 원천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기위해 질병연구실과 무균농장을 건설운영하는 등 육종사업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와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닭고기 산업의 발전방향 – 이계조회장(천호그룹), △우수기업과 사업의 재정의 – 김광영선생(맥스콘설팅그룹), △생산성 최대화를 위한 마니커종계 사양포인트 – 이종선차장(천호부화장), △항병성이 높은 병아리의 생산, △마니커종계의 개량현황과 전망 – 정기홍과장(마니육종), △88년 부화경기동향 – 김호섭이사(천호부화장), △효과적인 종란의 보관기법 – 홍광표이사(천호부화장), △중요 바이러스질병간의 상관성 – 오경록전무(천호인터그레이션).

축산관련단체장 조찬회

- 2월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구성키로 -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지난 2월 1일 조찬회 모임을 갖고 미국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개방은 쇠고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범축산인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조찬회에서 단체장들은 만일의 경우 관광호텔용 쇠고기가 수입된다하더라도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자단체인 축협을 통해 도입,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시켜 국내축산 기반조성은 물론 양축가들의 근본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장들은 이번 조찬회를 계기로 (가칭)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구성, 축산발전의 제반문제점에 대해 수시로 모임을 갖고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점

을 모색하여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미국 브로일러업계 시찰단 출국

미국브로일러업계 시찰단이 지난 2월27일 12일간의 여정으로 미국의 닭고기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분야를 시찰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시찰계획은 미국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회장 박영인)가 한국의 축산물 소비홍보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개발을 돋기위해 수행하고 있는 TEA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1월에 초청한 닭고기소비홍보 전문가 루이스 스톤박사 프로그램에 뒤이은 것이다.

이번 시찰단은 미국의 브로일러 주산지인 조지아주의 육계산업 및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화농장, 도계 및 가공처리장, 도·소매경로, 즉석식품부문을 방문하여 닭고기 생산, 위생처리, 부가가치제품개발, 계열화구조, 광고 및 판촉활동상을 돌아보고 Washington, D. C에서 정부와 업계단체를 찾아 브로일러산업의 전반적 현황, 업계의 조직과 역할, 자조금제도 및 닭고기 일반수요창출활동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회장), 윤효직(전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정선부(축산시험장 기금과장), 유철호(농경연축산개발실장), 강석부(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이사), 이희훈(현대양계주간), 성낙규(두산곡산부장), 김동권(삼삼브로일러사장), 김태웅(영육 브로일러상무).

'88 아바에이카 종계경영자 세미나 개최

-충남유성에서 약 230여명 참석 성황리에 끝나-

(주)한일원종농원(대표 : 최병현)이 주최하는 '88 아바에이카 종계경영자 세미나가 지난 2월27일(토)~28일(일)까지 1박2일간에 걸쳐 충남·유성관광호텔에서 아바에이카 종계경영자 및 부화업 종사자 약 230여명이 참석 대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현재 한일농원의 국내 종계시장 점유율은 41%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미나에 참여하는 경영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밝혀졌다. 그리고 주최측의 빈틈없는 사전준비로 인해 대인원이 불편함 없이 그간 필드에서 의문시되었던 사양

관리에 대한 의문을 직접 발표자의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는 A·A종계관리 성공사례발표(강남부 화장 마산형제부화장), 일본 A·A축산(Mr. T. HARA 박사), 김선중박사(레오바이러스 감염증 분석), 일본 다무라제약(Mr. SEKI박사), 김춘수상무('88년도 업계전망) 등이 맡았다.

특히 '88년도 업계전망에서 김상무는 88년도 육계 종계 생산잠재력이 2,978,600수로 87년대비 약 12% 가 늘어 소비추세에 따라 적정추이라고 분석했으며, 육계시장 전망에서는 금년2월은 16.7%가 증가를 보여 평균수준이고, 3~4월이 각각 26.5%, 25.8%가 증가 할 예상으로 분석되어 가격이 하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병아리가격에 있어서는 6, 7, 11월이 300원선을 넘을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87년도 유가공업계 광고비 350여억원 지출

- 작년 본회 홍보사업비 1억 2천여만원 -

87년도 유가공업계 총광고비가 3억50여억원 지출되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집계한 87년도 유업계 광고비는 10개 유업체에서 지출한 3백50여억원으로 매체별로는 TV(82%), 라디오(9%), 신문(7%), 잡지(2%) 순으로 사용되었다.

유업체별로는 삼양식품 70여억원으로 가장 많이 쓰고,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의 순이다.

최근 유업체뿐만 아니라 수산물, 타축산물, 가공식품 등 소비자들의 동물성 단백질식품 선택폭이 다양해짐에 따라 각업체는 수요개발을 위한 소비촉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홍보비지출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양계업계 작년도 소비홍보사업비는 1억 2천여만원으로 경쟁식품에 대해 상당한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육우협회 창립총회 개최

- 초대회장에 김양원씨 선출 -

한국육우협회(가칭)가 지난 2월24일 건국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육우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김양원씨를 선출했다.

이날 김양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국내 육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육우인들 스스로의 단결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

부했다.

특히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정책건의를 위한 「쇠고기 수입정책에 관한 대토론회와 발표회」가 있었으며 다른 과회도 베풀어져 그동안 만날 기회가 적었던 육우인들은 상호친목을 돋독히 다졌다.

업 계 단 신

○ 흥성사료공업(주) 공장·사무실 이전 : 흥성사료 공업(주) (대표 정태원)가 제2창업의 정신아래 반월 공장을 확장 준공하고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이전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90-1

전화 : (02) 869-1661 ~ 4

(0345) 83-3536, 6-9381

6-9384, 6-9412

6-4336

FAX : (02) 869-1665

서울영업소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25호

전화 : 464-8351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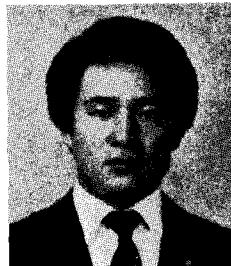
FAX : 464-1663

동사는 70년 흥성사료공업주식회사로 법인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의 기록으로 반월공장의 이전과 더불어 경영개선에 따른 새로운 모습으로 대양축가에 대한 사료물량 공급업무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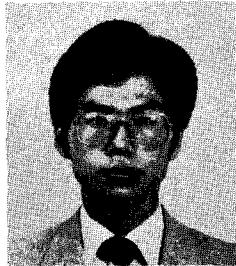
○ 송계원교수 정년퇴임식 및 고별강연회 : 33년간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모교발전에 힘써온 송계원교수가 오는 3월 16일(수)同대학 중강당에서 다음과 같이 정년퇴임식과 고별강연회를 갖는다.

- 장소 : 수원시 서둔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중강당
- 일시 : 1988년 3월 16일(수) 오후 2시30분

○ 과학사료(주) (대표 신정재) 직원채용 : 타이란, 타이란설파 등으로 양축가에게 호평과 신뢰를 받고 있는 동사에서는 최근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 및 양축가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였다.



(안진만)



(이진태)



(김성철)



(김종찬)

〈신입사원〉

이태봉(전국대 축산학과, 의정부지역)

인진만(경상대 축산학과, 경북지역)

이진태(동아대 축산학과, 부산지역)

김성철(전북대 축산학과, 전북지역)

박종환(예산농전 축산학과, 충청지역)

김종찬(강원대, 김포·인천지역)

김예제(전국대 축산학과)

○ 신촌사료(주) (대표 김용태) :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동사에서 CDR(완전배합착유사료) 사료를 개발해 인기리에 판매중이다.

CDR사료란 일반 착유사료에 각종 조사료의 특성을 완벽하게 가미시킨 착유우용 완전사료인데 연중 적정한 성분의 사료를 젖소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 산유능력을 극대화시키며 경제수명을 연장하고 소화기질 병을 예방해주며 유지방을 향상시켜 준다.

동제품은 동사에서 지난해 개발하여 장기간 사양시험을 거친 후 2개월 전부터 일반목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알팔파가 다양 함유되어 있고 펠렛으로 제조되어 기호성이 우수하고 유량이 증가해 목장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현재 CDR사료는 일반 착유우용과 고농력우용 등 두 가지 품목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

○ 노용덕씨 : 한일사료(주) (대표 최병덕)의 노용덕상 무가 지난 1월 1일자 전무로 승진되었다.

○ 대한사료(주) (대표 김상태) : 국내 사료산업의 선두주자로 40여년간 꾸준히 연구노력해 온 동사는 금번 사세확장과 대양축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입 사원을 대폭 채용했다.

한편 동사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승진인사 및 부서이동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이중길 부장)

〈승진인사〉

이중길부장(전 본사영업부부장)

〈부서이동〉

동부출장소장 : 이중길(전 본사영업부)

업무부부장 : 이만춘(전 동부출장소장)

〈신입사원〉

오규석(충북대 축산학과졸) 이동오(고려대 축산학과졸) 황광식(영남대 축산학과졸) 이광용(서울대 축산학과졸) 이창우(서울대 축산학과졸) 이성금(한양대 회계학과졸) 전승범(인하대 경제학과졸) 홍순용(신진 공고졸) 정연숙(덕수상고졸) 최기숙(덕수상고졸)

○ 녹십자수의약품(주) 세미나 개최 : 녹십자수의약품(주) (대표 김지홍)가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 일간에 걸쳐 동사 수원공장 세미나실에서 동물약품 판매업체 필드서비스담당자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세미나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① 최근 닭질병의 동향 및 대책 - 오경록전무
(천호부화장)

② 최근 돼지질병의 동향 및 대책 - 김영옥원장
(양돈개발원)

③ 닭백신의 개발추이와 오일백신 - 박영호차장
(녹십자수의약품)

④ 돼지백신의 개발추이와 접종프로그램 - 김채현과장
(녹십자수의약품)

또한 지난 1월 22일에는 동장소에서 사료판매업체 영업담당자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녹십자수의약품 박영호차장이 「닭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진단액 사용법」에 대해서, 가축위생연구소 권영방박사가 「최근돼지질병의 동향 및 대책」, 그리고 녹십자수의약품 김채현과장이 「돼지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E.Coli Local Vaccine」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했다.

한편 동사에서는 지난 2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대폭적인 직원승진 및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이 동〉

윤익현 : 영업담당이사

옥춘광 : 기획담당이사

송재근 : 서울사무소 영업부부장

홍명학 : 경인5지역담당 및 경인지역책임자 과장

김미숙(경북대 화학과) : 연구개발부에서 기획부로
〈승진인사〉

● 윤익현 이사, 옥춘광 이사

● 김정치 자재부부장, 변수섭 공장관리부부장, 송재근 영업부부장대우

● 홍명학 영업부부장, 박영호 미생물부차장

● 정순현 기획부과장, 김채현 미생물부과장

● 왕영진 기획부대리, 김억수 영업부대리

● 전태환 공장관리부계장, 박세교 공장관리부 계장, 이일섭 공장관리부계장

● 이수영 공장화학부기사, 박종연 공장관리부기사

〈신입사원〉

● 백영옥(서울대 수의대) : 미생물부

● 오순민(서울대 수의대) : 기획부

● 윤상근(경상대 수의과) : 기획부

○ 천호부화장(대표 : 이계욱) : 동사는 88년부터 보다 신속하고 우수한 양질의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지역에 병아리 판매 대리점을 모집한다.

사육농가에게 천호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연중 일정한 공급계획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모집하게 되는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연락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부화장(우) 139-240)

TEL : (02) 972-2907~8

○ 혜인원종농장 직원채용 : 인디안리버 한국특약점
인 혜인원종농장에서 사세화장과 조직적인 업무활성화를 위해 최근 前 홍성농원의 송재성씨를 영입했다.
● PS영업부 : 송재성과장 (전 홍성농원근무)
● 연락처 : 452-2921



(송재성)

○ 제5차 해표사료 판매촉진대회 개최 : 동방유량(주)
해표사료가 지난 1월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인천송도 비치호텔에서 각대리점 상담소 및 동사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해표사료 판촉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88년을 맞이하여 정신 재무장과 일체감 조성을 기하고자 개최되었는데 행사의 주요사항은 △경영방침의 정확한 전달 △판매의욕고취 △적극적 정신자세확립과 목표달성을 위한 힘양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토의와 단합의 기회를 가졌으며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 영남제분(주) (대표 유용술) : 동사는 최근 사세화장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승진 및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경력사원〉
대구사무소 : 이응식부장 (전 진양사료)
울산하치장 : 손진봉주임

〈신입사원〉
이종호 (동아대 법학과졸)
정환기 (경북대 낙농학과졸)
서영재 (건국대 축산학과졸)
김의장 (건국대 사료영양학과졸)
김성태 (대구대 축산학과졸)
이해룡 (경상대 축산학과졸)
박정현 (부산대 미생물학과졸)

〈직원승진〉

영업부 : 복원필과장
생산공부과 : 박성수과장
생산공무과 : 김치곤주임

○ 이화약품(주) (대표 이정협) : 동사가 마케팅활동의 조직화를 위해 사료첨가제 담당PM으로 이봉재(전 국대 대학원졸)씨를 기획부주임으로 특채하는 한편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 금년 3월1일부로 본격가동에 들어가며 해외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난 2월1일부로 FAX를 설치했다.

● FAX 번호 : (02) 677-5450

한편 오제스키병 등 바이러스성 질병방역에 탁월한 소독효과가 있는 라이소소독제 기술제휴인 서독 S+M사, 프랑스 INOVET사, 서독 퀘스트사 그리고 골드스미스사 기술진이 3월에 방한하여 신제품개발 및 향후 효율적인 마케팅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 한국단미사료협회 직원채용 :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이선우)가 지난 2월1일자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 기획조사부 : 안병구 (전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경영학과졸)

○ (주) 광진제약 : 동사는 업무의 활성화와 사세화장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및 충청지역에 다음과 같이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영업부〉

- 이종화 : 충청지역소장
- 김원규 : 서울·경인지역
- 정현숙

「추백리」진단액
구입문의는

본회 ☎ 752-3571 ~ 2